

PHOTO ESSAY

사진산책



• 독점 비주얼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 강원도 양양

다양한 인간관계와 노동은 때때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지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하다. 쉬는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TV나 보는 행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 자칫 몸과 마음이 더욱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움직임과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좋아하는 여가 활동에 전념해 마음을 달래고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좋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멍때리기'처럼 무상무념으로 지내는 것도 쉬이 될 수 있다. 평온한 장소나 숙소에 머물며 생각을 덜어내고 정신을 잠시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여가 활동과 멍때리기는 모두 의지가 필요한 능동적 행위다. 이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에게 맞는 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 쉬 없이 지내기엔 너무 벅차다.

이호준 Lee, Ho-Joon

언론학박사·포토아티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